

4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8,000 탈환!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증가기준 8,000선 회복에 성공하는 등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음. 이로써 미 증시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달 초 기록한 저점에 비하면 20% 이상 반등하였음.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9.51포인트(0.5%) 상승한 8,017.59로 마감, 지난 2월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최근 4주동안 21% 급등, 4주 연속 상승률로는 1933년 5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위험, 고수익'에 베팅	증시 반등기에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정보기술 부문 성장주에 주문이 집중되며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두드러졌음. 스마트폰 '블랙베리'를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 리서치 인모션은 수요증가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6% 급등했다고 전날 발표, 21% 폭등하며 관련주 강세를 이끌었음. 이날 10년만기 미 국채수익률은 3%선으로 상승(가격하락), 증시의 '위험 선호'현상을 반영했음.
엔화 약세 '안전선호'회석	글로벌 경기침체 바닥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엔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를 지속했음. 뉴욕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0.73엔(0.73%) 상승(엔화가치 하락)한 100.26엔을 기록했다.
유가 소폭 하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3센트(0.2%) 오른 52.51달러로 마감했음. 그러나 전날 9% 폭등한 여파로 주간으로는 0.3% 상승했음. 글로벌 경기침체 바닥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엔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를 지속했다.
美실업률 25년래 최악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실업률이 전월 8.1%에서 8.5%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임. 그러나 수개월 연속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1983년 11월 이후 25년래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음.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는 예상보다도 악화되었음. 비농업 고용자수는 66만 3,000명 감소해 전월(65만 1,000명 대비 신규 실업자가 크게 늘었음. 시장전망치는 66만명이었으나 이보다 3,000명 상회했음.

제목	주요 내용
IMF, EU 동유럽 국가 유로 도입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에 빠진 동유럽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폐기하고, 공식적인 유로존 가입 없이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IMF는 "유로존이 가입규정을 완화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지위 없이 준 회원국으로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며 "유로화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신을 보장시켜 외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
中 15 일 추가부양안 논의	국무원은 이번 상무회의에서 올해 1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최근 중국 경제는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추가 부양안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
日정부, 車판매 부양 위해 그린카 보조금 고려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효과를 줄이고, 부진한 자동차 판매 부양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30만엔 이상의 보조금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보조금 지급 대상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정수준의 배기량을 충족하는 일반 자동차도 포함.
한국 재정수지 악화 수준 OECD 2위	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 투입하는 재정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를 기록해 미국(-5.6%)에 이어 나쁠 것으로 전망했음.
한은 "외화대출 20억弗 재입찰"	입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지며, 최대 응찰금액은 외국환은행별로 3억 달러이며 최저 응찰금액은 100만 달러임. 이번에 입찰금액이 전액 낙찰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잔액은 종전의 16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됨.
가계통신비 8년째 줄었다.....전체 4.4%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8년 국민계정(잠정)'을 통해 '목적별 가계소비지출'에서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 통신비의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지난해 4.4%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2000년 통신비 비중이 5.4%였던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1% 포인트 낮아진 것임. 통신비 비중은 2003년 5.2%, 2005년 5%, 2006년 4.7%, 2007년 4.5%로 해마다 줄어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